

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영향은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,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0.15.(목) 서울경제, “주52시간에 고용·매출 모두 뒷걸음”...KDI의 뼈아픈 지적 이투데이, “52시간제, 제조업·中企 직격탄 고용·생산성·매출 일제히 하락” 등 기사 관련 설명

2. 설명 내용

- 기사에서 언급된 KDI 연구보고서*는 「사업체패널조사('15.~'23.)」를 활용해, 주52시간제가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,

* 인구감소시대의 근로시간 정책(김민섭, KDI), '26.4분기 공개 예정

- 주52시간제가 전체 사업체에 미친 평균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, 사업체 규모별·산업별로는 주52시간제 영향이 이질적으로 나타났다고 평가
- KDI 연구보고서는 주52시간제가 사업체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관찰되지 않지만,
 - 종사자 수는 300인 이상 사업체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모두 3.2~3.3% 감소하였고, 이는 주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가 생산량 감소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로 상쇄된 결과로 분석

- 또한, KDI 연구보고서는 주52시간제로 매출액은 변화가 없거나 다소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며, 영업이익과 부가가치액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분석
 - 다만, 사업체의 규모와 산업에 따라 주52시간제가 사업체의 성과에 미친 영향에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평가
- KDI 연구보고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에 따라 주52시간제의 영향을 분석하고,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한 바 있는 사업체에서는 고용 감소와 매출액 하락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,
 - 유연근무제가 적절히 활용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에 의한 충격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,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
- 한편, KDI 연구보고서는 해당 분석이 ①주52시간제 적용 시점이 최저임금 인상 시기('18.~'19.) 및 코로나19 유행시기와 맞물려 주52시간제 영향 추정치에 편의(bias)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,
 - ②분석에 활용된 사업체패널조사가 비교적 표본의 크기가 작고(1,632개 사업체), 시계열의 길이도 짧아('15년~'23년) 추정치의 표준편차가 전반적으로 큰 편으로 나타나 향후 보다 표본이 크고 시계열이 긴 자료를 이용한 후속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변재연 (044-202-7541) 김찬욱 (044-202-7972)